



사랑의 선율 이웃에 희망 주다

창단 2년째를 맞아 오는 12월 10일 16번째 공연을 할 예정인 빛고를 하모니카 동호회는 하모니카를 통해 사랑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를 열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한 실력파다.

손 옹은 "하모니카를 불면서 쾌활량이 늘어 건강도 좋아지고,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과 미소를 머금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좋다"며 "다시 끊어지는 기분이다"고 활짝 웃었다. 전남대 불문과 출신의 김선호 회장은 취미로 시작해 지난 2006년 하모니카 감사자격을 취득해 백화점과 문화교실에서 하모니카를 지도하는 등 취미가 직업이 된 하모니카 전도사다. 빛고를 하모니카 동호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정기모임을 갖고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회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봉사의 시간을 갖는다. 물론 틈틈이 도움의

음악으로 사회 봉사... 내달 10일 16번째 연주회

손길을 원하는 양로원이나 보육원을 찾아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다.

이의근(48)회원은 현 광주하모니카연맹 지부장으로 빛고를 하모니카 동호회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으며 하모니카의 저변확대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회원들의 실력이 연주회를 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이의근 회원의 지도 덕분이다.

이의근 회원은 "어르신들이 모두 너무 열심히 해 지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을 정도다"며 "하모니카를 통해 소일거리를 찾고, 또 봉사활동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런 마음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김용석(71)옹과 황보연(여·65세)씨는 부부 회원. 황 옹이 지난 2005년 하모니카에 입문한 뒤 3개월 뒤 아내 황보연씨도 하모니카에 입문했다. 듀엣으로 '언덕위의 집'을 연주할 때는 회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황 옹은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 부부 금슬도 좋아지고 가족간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인기 짝이다"며 "손주·손녀에게 하모니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부가 노년에 함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아내의 손을 꼬옥 잡았다.

홍상희(56·초대여교 교사)씨는 고령정보학교 선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 하모니카를 접하면서 더욱 봉사활동에 힘을 쏟게 됐다. 단순히 상담하고 교화하는 것도 좋았지만 불우한 이웃들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 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게 된 것.

이들은 오는 12월 10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 9층 강당에서 16번째 연주회를 갖는다. 나이를 잊고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하모니카 선율에 실어 전달하는 빛고를 하모니카 동호회의 영혼을 울리는 따뜻한 선율이 겨울의 추위마저 훈훈하게 한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5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 강의실, 머리가 반백인 중년의 신사와 멋진 중년 여성들이 모여 '스와니 강'을 하모니카로 멋드러지게 연주한다.

김선호(여·44) 회장이 "둘! 셋! 넷! 미래도마, 미래도도라도" 계명을 선창하며 리듬을 잡아가자 10명의 회원들이 환상의 화음을 뽐낸다. 1m가 넘는 긴 '코드 하모니카'와 쌍발기의 날개처럼 하모니카 두개로 이뤄진 '베이스 하모니카', '엘토', '호른' 등 평소 보기 어려운 하모니카들이 서로 어울려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음률세계로 초대한다.

백화점 문화교실에 참가하려 온 수강생들이 아름다운 연주에 끌려 창을 통해 내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이들은 첫번째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연주에 놀라고, 머리 희끗

40대 후반~70대 중반까지 중·노년들의 열정

희끗한 연주자들의 연령대에 다시 한번 놀란다. 이들 연주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로 모두를 감탄시킨 주인공들은 '빛고를 하모니카 동호회' 회원들. 지난 2006년 9월 음악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자는 취지로 만든 하모니카 동호회다.

현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호씨와 이승자·정희규·이영례씨등 중년여성 4명이 '네잎클로버'라는 이름으로 하모니카 연주 공연과 봉사활동을 해온것이 모태가 됐다.

이들은 주로 양로원, 보육원 등 불우시설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위문공연을 가거나 손수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40대 후반~70대 중반의 중년 아저씨·아줌마와 손주·손녀들 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모여 만든 동호회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에는 나이를 잊는다.

최고령 회원이자 서예가인 손규원(74세)옹은 하모니카를 연주한지 3년이 됐다. 지난 2005년 11월 상무역을 지나다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네잎 클로버'회원들의 연주를 듣고 매료돼 회원이 됐다. 지금까지 3년동안 딱 2번 몸이 불편해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빠진적이 없는 게근생이다. 이처럼 열심인 덕분에 최근에 신양파크 호텔에서 독주

■ 빛고를 하모니카 동호회



◀ 김용석 옹



▶ 황보연 씨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호막 나이트
광주첨단 · 폭스존열

12월 11(목) 12(금) 설운도

부킹천국 365일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별이 보이는 꿈에 그리던 나이트가 첨단상륙!!

OPEN 돔